

#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실행연구

김 보 영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Action Research for Parent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Kim, Boyoung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In this action research mixed research method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were used to examine a parent empowerment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action research. The 1st and 2nd sessions consisted of problem definition, planning, observation-evaluation and reflection. The parent empowerment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as developed through these steps,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empowerment experience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and qualitative data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parent empower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enhancing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attitude.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empowerment experiences were: "learn information on parenting", "live stately with assertion my of opinions", "become confident in giving care", "as learner appreciating that children also try to be nice" and "family relations have improved".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e program is effective in enabli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find a 'positive I' so that they become aware of their identity as parents and help in their roles as parents.

**Key Words:** Immigrant, Parent, Empowerment, Action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과 이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다원화되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조

사(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는 1,409,577명으로 2011년 대비 약 11.2%가 증가하였고, 외국계 주민 자녀는 168,583명으로 2009년 대비 13.2%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에 결혼이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을 보편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는 결혼관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성, 남녀 성비 불

**주요어:** 이민, 부모, 역량강화, 실행연구

**Corresponding author:** Kim, Boyoung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ck-seo-ro, Dong-gu, Gwangju 501-840, Korea.

Tel: +82-10-5609-9362, Fax: +82-62-655-8236, E-mail: dasom7812@daum.net

- 이 논문은 제 1저자 김보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3년 2월 7일 / 수정일 2013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2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균형, 농촌의 성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다민족 다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Yeun & Yang, 2012).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결혼이민여성 상당수는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사회편견, 자녀교육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ong & Yan, 2011). 결혼이민여성은 대개 결혼과 더불어 이민을 오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를 겪지 못한 채 부모역할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Kim, Y. S., 2008). 또한, 바람직한 부모역할 상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은 결혼이민여성에게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나 지지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Lee, 2010). 그러나 현재 실제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여성학, 가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의 갈등과 어려움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Kim, 2006; Lee, 2010), 비교적 최근 들어 간호학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부부의 성을 포함한 건강교육, 배우자 지지와 삶의 질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Kim, H. S., 2008; Kim, Lee, Kim, Park, & Lee, 2010; Labun, 2001; Song & Yan, 2011). 이 중 부모기에 접어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Shin, 2010; Yoo, 2010; Yoon, 2009)는 매우 미흡하였다.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어져 제한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 중에서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Kim et al., 2008; Shin & Won, 2009)의 대부분이 외국 프로그램의 번안 사례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우리문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나라마다 습관, 문화가 다르듯이 결혼이민여성 개개인별로 부모역할에 대한 소신도 다르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부모역할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눈으로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 속 고민에서 시작된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이다. 실행연구는 실천적 활동(action)과 연구(research)가 결합된 개념으로, 객관성이나 이론 정립에

대한 관심보다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성찰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한다(Lee et al., 2009).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주체'가 되고 참여자도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도출하거나,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탐구하는 연구방식이다(Elliott, 1991; Lee et al., 2009; Munn-Giddings, McVicar, & Smith, 2008). 연구자는 반성하고 성찰하고 재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일기 쓰듯이 보여주며 생산된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여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Elliott, 1991; Lee et al., 2009; Munn-Giddings, McVicar, & Smith, 2008). 결혼이민여성은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 대상 연구는 참여자가 호소하는 문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과 연구가 하나가 되는 실행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은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어머니로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역량강화에 앞서 부모역량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 효능감(Kim, Y. S., 2008; Kim et al., 2008; Shin & Chung, 1998; Song & Yan, 2011), 부모양육태도(Kim, Oh, Yoon, & Lee, 2009; Park, 2001), 적극적인 문제해결 참여(Kane, Wood, & Barlow, 2007; Yang, 2006), 효과적인 대화기술,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도,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이해(Kim et al., 2008), 자녀의 문제행동 이해, 부모교육에 참여한 집단의 구성원의 지지 및 배우자의 지지(Kane et al., 2007)를 역량요인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부모양육 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를 부모역량 요인으로 도출하여,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향상을 통해 부모양육 효능감과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참여자 상호간의 지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역량강화를 의미한다. 부모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를 의미한다(Bae et al., 2010; Kim, H. S., 2008; Shin & Chung, 1998).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하는 동안 자녀를 대하는 일관된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Kim et al., 2009; Park, 2001). 부모양육 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는 부모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자녀와의 관계가 보다 편안해지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특수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어머니로서의 가족의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직접 문제에 부딪히고 고민하며 개선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재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순환적 과정의 실행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연구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들의 역량강화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 역량강화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설계이다. 통합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접근의 통합적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

을 통해 해석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혼합하는 것이다(Creswell & Plano-Clark, 2007).

### 2. 연구모형

실행연구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며, 이 계획을 실천함과 동시에 과정을 관찰하고 실행된 결과에 대한 성찰 후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을 재수립하는 순환 과정을 걸치며(Elliott, 1991) 연구과정이 곧 실천이 되는 연구이다(Lee et al., 2009). 실행연구는 여러 모형이 존재하나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연구자에 의해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자료와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 중 Elliott (1991)의 실행모형은 문제인식, 문제검토 및 분석, 계획, 실행 관찰 및 효과 분석, 실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검토, 전체 계획 조정, 전체 계획 재수립, 재 실행관찰 및 효과 분석 재검토의 단계를 걸친다. 본 연구는 Elliott (1991)의 실행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2회 순환하였으며, 1차 실행은 문제 파악, 계획, 실행관찰·평가 및 반성의 단계로 진행하였고, 2차 실행은 문제파악·재계획, 실행관찰·평가 및 반성단계로 진행하였다(Figure 1).

### 3.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G광역시 거주자 중, 한국남성과 혼인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여성 중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한국어 의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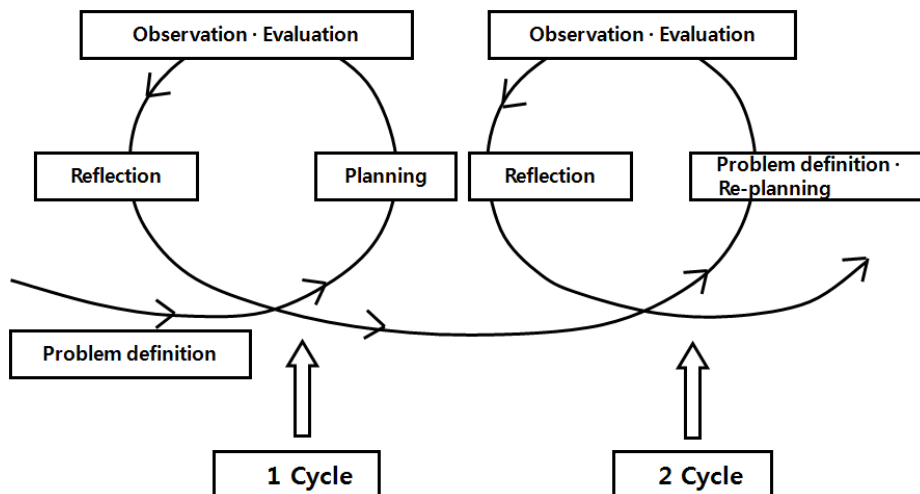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action research for this study.

통이 가능하며,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주 기간이 4년 이상인 자를 B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편의표집 하였다. 1차 실행 참여자는 14명이었으며, 2차 실행 참여자는 1차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기를 희망한 6명을 포함한 만 23세에서 만 46세 사이의 여성으로 총 11명이며, 양적 분석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10명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 국적은 일본 2명, 중국 3명, 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이었고, 연령은 '30~39세' 5명, '40~49세' 5명, '20~29세' 1명이었다.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1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2명, '15년 이상' 2명, '5년 미만' 1명이었다. 자녀수는 평균 2.2명이었고, 학력은 '대학졸업' 7명, '고등학교 졸업' 4명이었다.

#### 4. 연구절차

1차 실행은 문제파악, 계획, 실행관찰·평가 및 반성 단계로 이루어졌다. 문제파악 단계에서는 문헌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계획단계에서는 문제파악 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내용에 반영하여 대화·발전·발견의 3단계, 총 6회기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였다. 실행관찰·평가 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며 관찰 및 평가하였다. 반성 단계에서는 2차 연구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2차 실행은 문제파악·재계획, 실행관찰·평가 및 반성 단계로 이루어졌다. 문제파악·재계획 단계에서는 1차 연구에서 추출된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토대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화·발전·발견의 3단계 총 8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재를 재개발하였다. 실행관찰·평가 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며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양적 자료를 측정하여 단일군 사전사후 차이 검정을 하였고, 개인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 분석하였다. 반성 단계에서는 2차 실행 전반에 걸쳐 반성 후 추후 연구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G광역시 B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과 실무 책임자에게 연구 수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자세한 연구과정 프로그램 결과물은 모두 연구자의 연구에 사용됨을 명시하며, 연구참여 전 과정은 녹음 및 비디오 촬영될 것을 미리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와 정보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로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설문 조사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설문지와 참여자의 나라별 언어로 번안한 설문지를 동시에 배부하였다. 참여자의 나라별 언어로 번안한 설문지는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석사 이상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번안하고, 한국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나라 통역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보상으로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수집 및 분석

##### 1) 양적 접근

###### (1) 연구도구

###### • 부모양육 효능감

부모양육 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척도를 Shin과 Chung (1998)이 수정·보완하고,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구에 대해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 5점 척도 도구로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과 Chung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 .80이었다.

###### • 부모양육 태도

부모양육 태도는 Park (2001)의 척도를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구에 대해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애정, 자율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78이었다.

###### (2) 자료수집

1차 실행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7월 22일까지였고, 2차 실행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1차 실행은 총 14명 대상으로 각각 6~7명씩을 3모둠으로 구성하여, 주 1회, 2시간씩 총 6회기로 실시하였다. 2차 실행은 1차 실행 참여자 6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대상으로 주 2회, 8회, 90~120분씩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전문가인 본 연구자와 상담교육을 수료한 보



조진행자 2인이 함께 진행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속 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 2) 질적 접근

### (1)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었으며, 개인면담,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 사진, 녹음 및 비디오 촬영, 연구자 일지, 참여자 프로그램 결과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면담은 1차 실험 개인면담 2회, 2차 실험은 개인면담을 2회에 각 1명씩을 30분 이내로 진행하였다. 개인면담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개선점 및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차 실험 1회, 그리고 2차 실험은 2회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자 교재, 참여자 소감문, 현장일지(참여자 행동, 반응, 연구자 반성 등), 프로그램 진행 보조 진행자 일지, 사진, 녹음 및 비디오 촬영 전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오디오 녹음 및 비디오 촬영을 통한 자료수집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강의실 뒤쪽이나 앞쪽에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 (2) 자료분석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 경험은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 단계인 분석단위 선정단계, 범주 도출과 정의단계 및 범주정의와 규칙의 수정 단계에 따라 1차 실험 후 그리고 2차 실험 후에 내용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과정에 활용된 자료는 면담 기록지, 프로그램 결과물, 현장일지, 프로그램 보조진행 일지, 프로그램 녹음 및 비디오 촬영 전사지 등이었다. 특히, 전사는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동시에 전사한 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단위 선정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분석단위를 역량강화로 선정하여 역량강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구문과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범주 도출과 정의 단계에서는 각 영역의 범주화를 위한 도식을 1차로 도출하였으며, 1차 개발된 범주도식에 선정된 구문 및 문장을 적용하여 참여자별 개념을 분류, 정의하였다. 범주정의와 규칙의 수정 단계에서는 분류 결과 중 일치도가 낮거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구문 및 문장을 같은 범주에 속한 문장끼리 비교하고, 전체문장 속에서 의미상의 혼란을 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범주를 제안하여 2차 개발된 범주 도식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주 도식 작성을 위해 본 연구자와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질적 논문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구문 및 문장을 동일한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고, 2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도식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 6. 연구의 엄밀성 확보

연구결과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2000)의 질적 연구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및 확증성(confirmability)을 수행하였다. 먼저 신뢰성 기준에 따라 참여자들과 신뢰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며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단어와 구, 문장들을 파악하려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간호학 교수 1인과 함께 녹음, 비디오 촬영 면담 전사내용 중 원자료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나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시켰다. 둘째, 적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도 역량강화 경험을 제시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다른 결혼이민여성에게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결혼이민여성에게 본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감사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시도했을 때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연구 세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접근, 자료수집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탐색하고 현장일지에 상세히 기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의 면담 후 바로 전사와 요약본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성찰하였으며, 부모교육 전문가인 동료 연구자 1명과 연구자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넷째, 확증성은 연구결과가 중립적으로 편견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최대한 프로그램 안에 반영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과 적합성, 그리고 감사가능성을 확립하였기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실행연구를 수행하면서 1차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2차 실행의 문제파악·재계획 단계에서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2차 실행 결과는 문제파악·재계획, 실행관찰·평가 및 반성 단계로 제시하였다.

### 1. 문제파악·재계획

1차 실행연구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은 Freire (1994)의 역량강화 교육이론과 Falk-Rafael (2001)의 역량강화 돌봄 모델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Freire (1994)의 'literacy'의 개념은 타자화되고 편견 속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복원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즉, 자신의 목소리와 욕구들을 되찾아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로 본 연구참여자인 결혼이민여성에게 Freire (1994)의 역량강화 교육이론은 적합하다 판단하여 역량강화 교육이론을 받아들였다. Falk-Rafael (2001)의 돌봄 역량강화 모델은 역량강화란 의식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1차 연구결과 추출된 문제점은 2차 실행연구에서 개선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프로그램 실행 시 운영 시간과 회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행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2회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 문화의 이해 및 자녀와의 적극적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추가회기로 구성하였다. 1차 실행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나, 2차 실행에서는 말소리뿐만 아니라 제스처, 표정, 말 빠르기, 시선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과 비디오 촬영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1차 추출된 문제점을 2차 계획에 반영하여 2차 실행은 Freire (1994)의 역량강화 교육 이론의 3단계인 경청(1~2회기), 대화(3~7회기), 행동반영(8회기)으로 총 8회기, 90~120분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 2. 실행관찰·평가

#### 1) 실행관찰

경청 단계(1~2회기)는 참여자 자신과 가족, 자녀의 강점을 찾아 강화하도록 하며, 주요 욕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가계도를 완성한 후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강점을 찾고 자녀에게 감동받은 경험을 나누었다. 참

여자들은 가족의 강점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자신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화 단계(3~7회기)는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이해, 청소년의 문화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및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법에 관한 기술습득을 통한 의식고양에 목적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상담사례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자녀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통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통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훈련은 동영상 사례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공감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동영상 사례 제공은 문제행동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마다 관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진행자가 답을 제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참여자들의 관점 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참여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처지의 자녀양육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 양육자가 결혼이민여성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행동이 관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동반영 단계는(8회기)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점검하는 단계로 가족의 규칙을 점검하고 긍정적 부모역량강화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가족규칙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2) 평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부모양육 효능감, 부모양육 태도의 변화를 양적 분석으로 평가하였고, 참여자 부모역량강화 경험에 대해서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 (1) 양적 분석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부모양육 효능감 점수의 사후 값에서 사전 값을 뺀 결과 정적순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z = -2.45, p = .014$ ). 부모양육 태도 점수의 사후 값에서 사전 값을 뺀 결과 정적순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z = -2.61, p = .005$ ) (Table 2). 분석결과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양육 효능감과 양육 태도 점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Table 1.**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ge	Session	Topics	Contents
Listening	1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gram orientation</li> <li>· Making nickname to symbolize 'I'</li> <li>· Warming-up game to build friendship</li> <li>· Getting each other, drawing partner's face</li> <li>· Express desire priorities for change to a different-sized piece of pizza</li> </ul>
	2	Understanding of being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leting a family-tree with animals</li> <li>· Thinking about strong points of one's family</li> <li>· Discussing how the participant can utilize one's advantages to nurturing children</li> <li>· Sharing the moment when each learner got moved by children</li> </ul>
Conversation	3	Understanding of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rehending features of children and challenges in nurturing</li> <li>· Education on importance and manage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 and adolescent</li> <li>· Significance of parent roles by development stage in adolescent</li> </ul>
	4	Looking at the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ucation on youth culture</li> <li>· Sharing differences between culture in home country and Korea</li> <li>· Sharing success story to play a parent role</li> </ul>
	5	Active conversation with children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ding out barriers of daily conversations</li> <li>· Figuring out discipline</li> <li>· 'I-message' education</li> </ul>
	6	Active conversation with children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ing experiences of parent growth</li> <li>· Sharing children's responses after applying 'I-message'</li> <li>· Converting everyday words to 'I-message' practice on communication with the subject of teenage cultures</li> </ul>
	7	Improving problem solving 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aring troublesome and stressful behaviors and the following resolutions in individual's experience</li> <li>· Sharing how to take anger out in a helpful manner when bringing up children</li> </ul>
Behavior reflection	8	Activity for a united fami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viewing family rules</li> <li>· Reviewing and strengthening parent roles</li> <li>· Presenting a letters of love for children</li> <li>· Ceremony</li> </ul>

**Table 2.** Effects of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N=10)

Variables	Categories	n	Mean rank	Sum of ranks	Z	p
Parenting efficacy	Negative	9	5.7	51.5	-2.45	.014
	Positive	1	3.5	3.5		
Parenting attitude	Negative	10	5.5	55.0	-2.61	.005
	Positive	0	0.0	0.0		

## (2) 질적 분석

2차 실행 질적 분석은 참여자 교제, 참여자 소감문, 현장일지, 동료일지, 사진, 녹음 및 비디오 촬영 전사지를 활용하여 5개의 범주와 2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5개의 범주는 ‘자녀양육 정보를 알게 됨’,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게 됨’,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모국 문화를 세상 밖으로 나오

게 함’, ‘가족관계가 개선됨’이었고, 2개의 하위범주는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됨’, ‘어머니 역할에 활력이 생김’으로 나타났다.

- 자녀양육 정보를 알게 됨
- 참여자들은 습득한 자녀양육기술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

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및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 나누기를 통해 청소년기의 특징과 문제행동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가 하는 말 중에 담팅, 등업, 냉무, 정모, 팬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어가 서툴러 못 알아먹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가 후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인 걸 알고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9)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무슨 말을 쓰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한, 대화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참여자 7)

#### •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게 됨

참여자들은 언어가 서툴거나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목소리를 자녀에게 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 후 결혼이민여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올바르게 자녀양육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어머니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양육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보다 더 당당하게 표현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요즘은 변한 것 같아요. 좀 치워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미리 말을 했어요. 경고는 아니지만 ‘너희들 먼저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는(것은) 엄마가 몇 시쯤 집에 들어가니까,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들어가니까 그 때까지 좀 세 명 다 같이 사이 좋게 치웠으면 좋겠다.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치워놓은 걸 보고 너무나 기뻐어요. 진작 그렇게 말 할 것을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참여자 5)

#### •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 \*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됨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잔소리, 큰 소리로 야단치기, 짜증 등의 일관성 없는 분노의 표현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참여 후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부모로서 자신감 회복과 심적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부모말만 잘 들으라고 하면 안 되고 애들도 할 말이 많더라고요. 애들 말도 들어보고 아빠 말도 잘 들어보고 그때는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제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날 때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에게 화를 내기 전에 엄마 생각을 전달하고 그것도 힘들면 화가 날 때는 후...후... 숨을 쉬고 잠깐 설거지를 하고 아이와 다시 말을 해요.(참여자 3)

##### \* 어머니 역할에 활력이 생김

참여자들은 주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적 시선으로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하였다. 심리적으로는 한국의 일반 어머니처럼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한국어 및 교육 제도가 익숙지 않고, 한국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에 위축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언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의 한계로 자녀의 학업을 잘 도와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인 극복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어머니 역할에 대한 활력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 교육 받고 100% 자신감이 붙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깐요. 고마워요.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깐 반복해서 고칠 수 있으니 빨리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아이들 빨리 고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어서 좋고 항상 프로그램 교육 받으니까 좋아요.(참여자 4)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려운 것을 물어보면 엄마 나라 말로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엄마가 잘 모르겠어. 공부해 보고 그래도 모르면 우리 아빠 기다리자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참여자 8)

##### \* 모국 문화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모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국 문화나 모국음식, 모국어 등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실망



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엄마 나라의 언어를 점차 잊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속상하다고 하였다. 특히,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잠재적 경쟁력을 놓치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앞으로 자녀들이 문화, 언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활용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다.

월드컵 할 때 일본이랑 한국이랑 경기하면 남편이랑, 아이들은 한국을 응원하는데 저는 일본도 응원하기도, 한국을 응원하기도 그랬어요.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선생님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던 나라라며 나쁜 나라라는데 정말 맞는지 와서 묻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는 두 나라를 다 응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참여자 5)

#### • 가족관계가 개선됨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언어장벽으로 대화 단절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정신적 지지자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가족의 좋은 점을 먼저 찾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힘들다고 말을 하니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화나는 것도 별로 없고 애들이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칭찬도 많이 해주게 됐고, 좋았어요. 애들은 그,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들, 많이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 엄마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으면 이전에는 절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학원을 안 갔다고 하거나, 내가 잘못을 했다거나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요.(참여자 10)

### 3) 반성

1차 실행의 반성은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계획에 반영하여 이론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실제 적용한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한 성찰이었다. 반면 2차 실행의 반성은 1차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교류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 후 성찰이었

다. 2차 실행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시행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청소년의 문화이해와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추가 구성하였다. 추가 구성된 내용은 참여자가 자녀의 발달 단계와 그에 따른 양육 과제를 점검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회기의 연장은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포커스 인터뷰에서 추출한 자녀문제행동의 사례를 프로그램 내용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동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와 유사한 사례를 주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자녀문제행동을 토론의 직접적인 사례로 활용할 경우, 다른 부모보다 자신이 자녀양육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위축감이 느껴진다는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의 행동을 관찰하고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관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참여자의 행동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1, 2차 실행 결과 참여자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녀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녀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거나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변화된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참여자의 변화 원동력은 참여자가 문제해결 대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부모양육 효능감과 부모양육 태도의 긍정적 변화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실행연구로 결혼이민 여성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양적,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행연구는 문제의 원인파 개선대안 찾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반화 혹은 실무에서 이미 발견하거나 나타난 문제를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연구설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주체’로 보고 그 주체들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 연구과정이 곧 실천이 되는 실행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부모를 능력 있는 존재로 보고, 자녀양육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원 활용 능력이 있으며, 이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그룹

의 자발적 참여적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제공과 자녀 돌봄과 관련된 지식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양육 태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민 여성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의식이 향상되고, 부모양육 태도 변화와 부모양육 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 (2006)과 Yoo (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 효능감이 향상되면 자녀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 대처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Bae 등(201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 효능감 향상은 자녀의 발달과 부모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일관된 부모양육 태도가 증가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문화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2차 양적 효과평가의 경우는 1차 실행 참여자 6명을 포함한 양적 분석결과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양적 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질적 분석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하여 추후 연구에 부모역량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의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부모역량강화의 조건이 무엇이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Yang (2006)은 부모양육 효능감 향상과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 향상, Kim 등(2008)은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기술을 습득,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역량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Eo와 Kim (2009)의 연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Kane 등(2007)은 부모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을 때 부모역량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결과 부모역량강화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태도, 능력 및 적절한 상호작용이 향상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 모음에서 ‘자녀양육 정보를 알게 됨’,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가족관계가 개선됨’,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됨’, ‘어머니 역할에 활력이 생김’은 선행연구의 부모양육역량강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결혼이민여성 대개가 결혼과 더불어 이민을 오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과 자신이 성장한 모국의 교육 및 자녀양육 방식이 아닌 다른 문화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게 됨’, ‘모국 문화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

이 독특한 부모역량강화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을 세 가지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차원으로 자신의 변화다. 자녀양육 지식 및 효과적인 대화기술을 습득하여 자녀와의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가 결혼이민여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모국의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측면의 교육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였다.

둘째, 대인적 차원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변화다. 참여자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생겨 발전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참여자 간의 정서적 지지와 소통은 참여자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하였다. 셋째, 행동의 변화다. Falk-Rafael (2001)은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자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각의 변화는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행동의 변화는 참여자 자신 안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의 행동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는 ‘참여’를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자신들이 혼자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참여를 통해 나누고,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도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참여자에게도 힘을 줄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믿음은 참여자의 부모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는 자신 및 가족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자녀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야 비로소 가능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부모역량강화 의미는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할과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역량강화 향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방법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어떤 효과를 주며 그 결과 참여자가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있어 한국어 사용이 서툰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해의 토대도 마련되지 못한 채 부모역량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현상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교육의 부재'와 '세대 간 격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Kweon (2011)과 Shin (2011)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고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엄마들도 이제는 컴퓨터 사용에 능숙해야 아이들 학교 공부를 잘 돌봐줄 수 있어요. 학교선생님이 학교계시판에 알림내용을 적어 놓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라는 표현 속에서 어머니 역할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요구한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 기회가 부족하며, 이것은 부모역량을 위협하는 내부의 또 다른 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의 정보화 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원자원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험연구의 인과성을 밝히는데 주요한 요건인 통제집단이 없다는 점과 실험집단의 수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의 국적과 연령, 학력 등이 차이가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에 있어 프로그램 회기 동안 모두 참여한 참여자만을 분석에 포함시키다보니 표본의 크기 수가 줄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 평가 도구는 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였고,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할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문항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양적 분석결과 해석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의 연구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과정을 추적하고, 참여자의 개인별 부모역량강화 경험의 탐색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결론

본 연구의 긴 실험연구 여정은 이제 끝이 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부모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생생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모든 경험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양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간호중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Bae, K. E., Lee, K. H., Kim, Y. H., Kim, S., Kim, H. K., & Kim, J. H. (2010).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 175-183.
- Creswell, J. W., & Plano-Clark, V. L.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 Elliott, J. (1991). *Action research for educational change*.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Eo, Y. S., & Kim, M. J. (2009). Effects of child-rearing stress and empowerment on quality of life i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5, 409-416.
- Falk-Rafael, A. (2001). Empowerment as a process of evolving consciousness: A model of empowered car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 1-16.
- Freire, P. (1994).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Kane, G. A., Wood, V. A., & Barlow, J. (2007). Parenting programmes: A systematic review and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 784-793.
- Kim, E. H., Lee, E. J., Kim, M. J., Park, D. Y., & Lee, S. H. (2010).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78-87.
-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48-256.
- Kim, J. H., Oh, J. A., Yoon, C. M., & Lee, J. H. (2009).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Korean Parent Child Health*, 12, 46-60.

- Kim, O. N. (2006).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18, 33-76.
- Kim, S. O., No, S. O., No, M. S., Ryu, K. H., Yu, H. J., & Lee, Y. H. (2008). Parents from mars getting through to children from venus: An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 37-54.
- Kim, Y. S. (2008).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adaptability of the resilient parenting program to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24, 189-222.
- Kweon, H. S. (2011). A study on an adolescent experience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18, 35-72.
- Labun, E. (2001). Cultural discovery in nursing practice with Vietnamese cl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 874-881.
- Lee, J. S. (2010). The variable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 1-14.
- Lee, Y. S., Kim, Y. C., Lee, H. K., Kim, Y. M., Joo, D. J., & Joo, J. S. (2009). *Action research*. Seoul: Hakjisa.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2012 survey results of foreign residents*. Retrieved August 14, 2012, from <http://www.mopas.go.kr>
- Munn-Giddings, C., McVicar, A., & Smith, L. (2008) Systematic review of the uptake and design of action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16, 465-477.
- Park, G. H.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personality stru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Sandelowski, M. (2000).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ampl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echniques in mixed method studi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3, 246-255.
- Shin, H. S. (2011). *Study on nurturing experience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Shin, S. H., & Won, J. S. (2009). The effects of a self-esteem enhancement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492-500.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9, 1-42.
- Shin, Y. H. (2010). Using an empowerment approach with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8, 161-192.
- Song, S. H., & Yan, H. J.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67-179.
- Yang, S. M. (2006). *Empowerment group program for parents with the handicapped children*.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Yeun, Y. R., & Yang, S. (2012). Effects of a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o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250-261.
- Yoo, M. S. (2010). Effects of a multi-cultural marital advocacy program based on empowerment model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way and family stress in multi-cultural Couples. *Journal of Korean Social Maternal and Child Health*, 14, 145-160.
- Yoon, H. M. (2009). Social work with marriage based immigrant families: An application of empowerment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 85-108.